

# 공간 클럽 - 01

## Space and Rooms

이재훈 /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by Lee Jae-Hoon

건축공간에 대해 막연히 동경하며, 좋은 건축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시간을 기억해본다. 그다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 보인다. 어찌보면 건축주의 요구와 구조, 기능, 설비, 건축비의 문제에 매달려 좋은 건축공간이 가져야할 모습을 마지막까지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건축가에게 꿈같은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해본 적이 없는 나만이 만들어낸 건축공간일 것이다. 그것은 영원한 건축가의 꿈이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건축인이 건축적 삶을 사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근래, 건축공간에 우선하여 형태적 유희나 재료의 표현, 프로덕션의 즐거움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경향이 보여지기도 하지만, 건축이 존재하는 고유한 영역은 결국 공간이라는 것에 모두 공감하리라고 생각된다.

젊은 시절 건축공간에 대한 향수를 달래며, 잊혀져가는 건축공간의 가치를 새롭게 일으키고자 공간클럽이라는 이름으로 건축공간에 대한 이런 저런 얘기를 던지려고 한다. 더러는 일반적인 이야기도 있겠지만, 소주제를 통해 건축공간을 전혀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 주>

### 목 차

<p><b>1회</b> a. 공간은 하나인가요? b. 공간의 증거 c. 공간은 없다</p> <p><b>2회</b> a. architectonic space b. 노자의 공간개념 c. 5차원공간</p> <p><b>3회</b> a. 누구의 공간인가? b. 얼어붙은 공간 c. 서랍속의 공간</p> <p><b>4회</b> a. 논리로서 공간을 이해한다. b. 공간계놈지도 c. 공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p>	<p><b>5회</b> a. 중성의 공간 b. 공간의 성격-공적공간 c. 공간의 성격-장소성</p> <p><b>6회</b> a. 공간의 밀도 b. 공간의 위계 c. 공간의 전이</p> <p><b>7회</b> a. 공간의 창조 b. 기억나는 공간 c. 쉬운 공간만들기 d. 공간실험</p> <p><b>8회</b> a. served space &amp; servant space b. 공간의 종류 c. 공간의 극</p>	<p><b>9회</b> a. 공간의 경계 b. 공간의 관계 c. 공간의 모듈 d. 공간의 비례</p> <p><b>10회</b> a. cyber space b. space syntax c. spatial behavior</p> <p><b>11회</b> a. 공간속의 기동 b. 씨나리오 있는 공간 c. 창으로 본 공간</p> <p><b>12회</b> a. 공간계획 b. 공간디자인 c. 공간문법</p>
--	--	---

**공간은 하나인가요?**  
Space or Place?



그림1 우주 공간 : Stephen Hawking's Universe

공간은 하나인가요? 아니면 공간은 하나, 둘, 셋, 그렇게 여러 개로 구분해서 셀 수 있나요?

우주와 우리가 사는 지구는 하나의 같은 공간인가요? 아니면 우주는 우주이고, 지구는 지구인 별개의 나뉘어진 공간인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안방, 거실, 부엌, 건넌방, 이들 공간은 전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벽으로 나뉘어진 부분 부분이 각각 하나씩 구별된 공간이라고 보아야 하나요?

이러한 의문을 품는 것은 공간을 구성하는 입장에서 매우 다른 시작을 의미하게 된다.

공간이 하나인가요? 에 대한 답은 공간에 대해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플라톤은 공간을 무한의 절대공간으로 정의하였다. 우리가 서있는 이곳이나, 저 먼 하늘이나 별이 있는 우주나 모두 같은 하나의 공간으로 본다.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이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간에, 우리가 다디를 수 있거나 없거나 간에 모든 공간을 하나로 본다.

공간을 하나로 읽을 때 공간을 구성한다는 뜻은 하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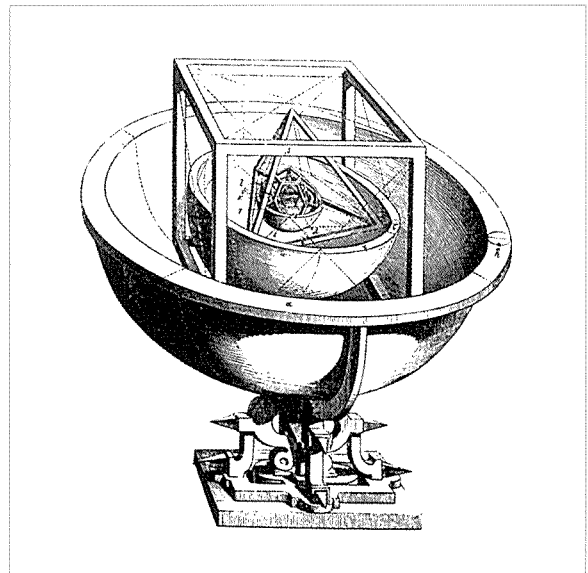


그림2 플라톤의 입체

어떻게 쪼개느냐(나누느냐)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수평선과 수직선이 시작점이 될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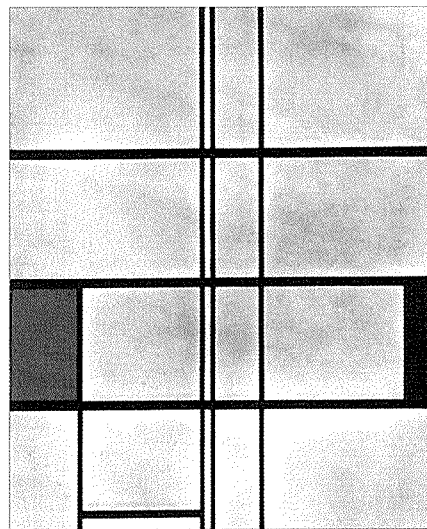


그림3 몬드리안의 면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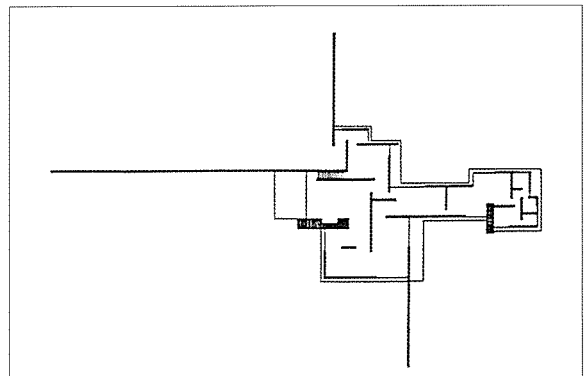


그림4 미스의 공간 나누기

컴퓨터 속의 공간은 플라톤의 무한 공간 개념이다. 컴퓨터 속의 무한 공간에 절대좌표를 집어넣고, 절대지점을 선정하고 그로부터 개별적인 조작에 의해 위치를 잡아간다. 그리드나 레이어와 같은 틀을 설정하는 것은 공간 나누기의 전형적인 방식이 된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공간을 유한한 경험속의 공간으로 정의한다. 우리가 서있는 곳과 다른 사람이 서있는 곳을 서로 다른 공간으로 구별한다. 이 방과 저방이 구별되며, 이곳, 저곳, 그곳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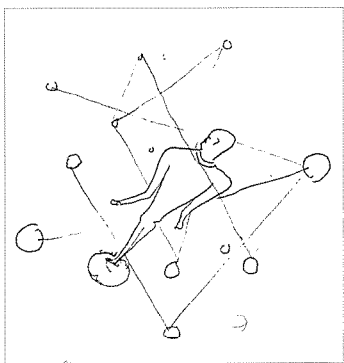


그림 5 공간에 대한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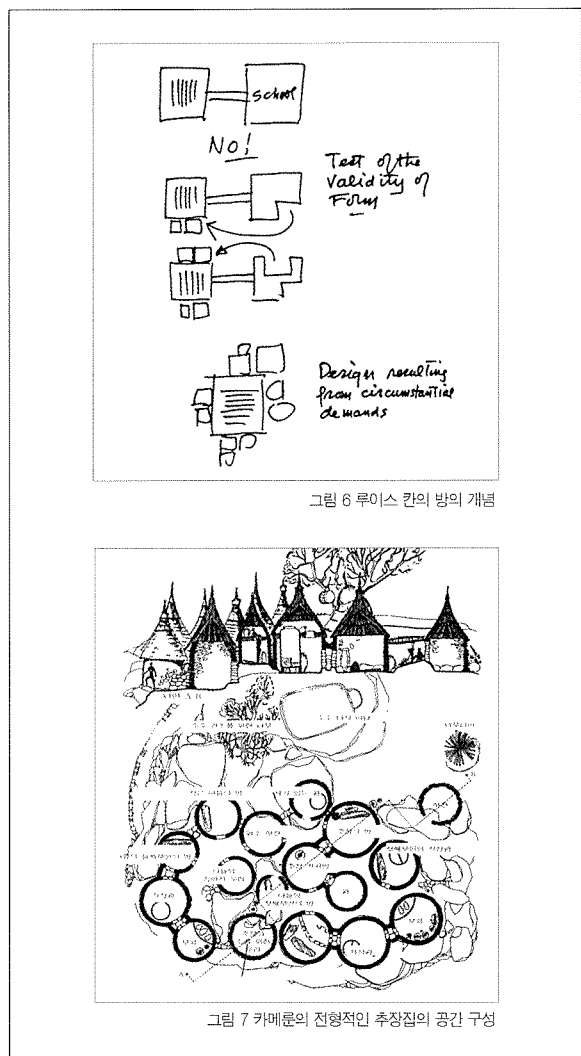


그림 6 루이스 칸의 방의 개념

그림 7 카메룬의 전형적인 추장집의 공간 구성

두가 다른 공간으로 인정된다. 그의 뜻대로라면 공간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 공간의 수가 무한이 된다.

공간을 구별된 여러 개의 공간으로 읽는다면, 공간을 구성한다는 것은 공간과 공간의 관계를 어떻게 엮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된다. 하나하나의 공간은 의미있는 별개의 대상이며, 건축공간을 구성한다는 것은 이들 별개의 공간들을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이며, 어디에 놓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장소적 특성을 고민하는 것은 구별된 공간으로 보려는 시도이다. 방(Raum)의 개념으로 건축공간을 구성하였던 루이스 칸은 이와 같은 인식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공간을 하나로 보느냐? 여러 개로 보느냐? 하는 것은 정답을 추구하기 보다는 시각의 차이로 보아야 할 듯싶다. 이와 같은 생각은 건축물을 자연과 분리된 독립대상으로 볼 것인지? 자연의 일부로서 배경에 녹아드는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의되지 않는 자세와 상응한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물음이 우리가 건축공간을 만들어 갈 때, 공간의 가치와 공간구성의 방법에 대해 보다 깊이 생각해 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 공간존재의 증거 The Proof of Space Existence

공간은 만져지지 않는다. 공간은 쉽게 감지되지 않는다. 19세기 schmarsow 등 독일의 이론가들은 공간을 사물의 밀도가 굉장히 낮아진 상태라고 정의내렸던 적이 있다. 즉, 인간의 눈과 촉각으로 알 수 없는 공간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물의 형태를 통해 형태의 밀도가 굉장히 낮아진 상태가 공간이라는 상대적 정의로서 설명하려고 한 흔적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그럴듯한 이론일 뿐 공간의 존재를 증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눈에 보이지 않으며 만져지지 않는 공간을 설명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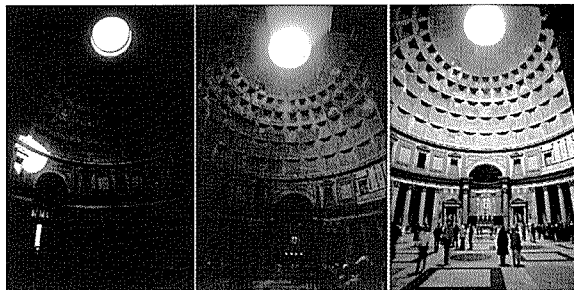


그림 8 Pantheon의 내부공간을 드러내주는 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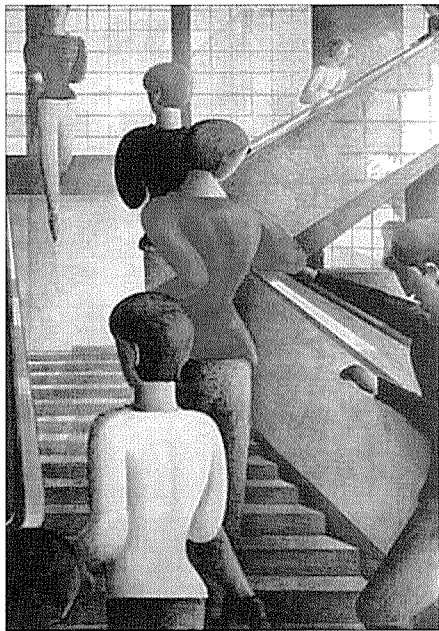


그림 9 Oskar Schlemmer의 계단오르는 사람: 공간을 차지함으로써 공간의 존재를 인식

그렇다면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증거를 나타낼 수 있을까?

그 시작은 빛이라고 생각된다. 공간의 간은 한자로 間으로서 문(門)사이에 비추이는 빛(日)을 뜻한다. 어두운 장소에 틈사이로 비추이는 빛은 틈이라는 공간의 존재를 극명하게 드러내준다. 보이지 않던 공간이 빛이 비추임으로서 드러내져지며, 이로서 공간의 존재를 시각적으로 발견하게 된다.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빛의 활용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도 공간의 존재를 드러내고픈 근본적 입장을 보여준다. 근래 공간보다는 형태를 드러내기 위해 빛을 사용하는 건축가들을 보면 건축의 고유한 영역을 착각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공간의 증거를 보여주는 절대적인 것은 우리의 몸이 없다고 생각해보는 데서 올 수 있다. 우리의 몸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음으로서, 우리의 몸이 존재하듯 공간은 존재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문이 열려있을 때 그곳의 공간이 비워져있지만, 사람이 문에 서있으면 아무도 관통하지 못한다. 그 공간은 사람에 의해 점유되어 있는 것이다. 텅빈 계단을 상상하면서 계단 오르는 사람의 사진을 보면 사람이 있음으로서 공간이 점유되어짐을 알 수 있다. 즉, 사람이 차지한다는 것으로부터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상황이다. 너무도 간단한 진리



그림 10 거리가 느껴지는 앉아있는 두 사람



그림 11 중첩된 산등선에 의한 사이 공간의 인식

지만 자신의 몸이 없음을 가정할 수 있어야 공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간의 사용 면적을 원초적으로 따질 때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간의 존재에 대한 인식적 연구결과로부터 공간의 존재를 알 수 있기도 하다. 형태와 공간을 뒤집어 생각해보고 그림으로 그려낸 Noll의 도시지도도를 보면, 건물의 구조 형태가 존재하여 그림으로 표현되듯, 반대로 그림으로 표현된 공간을 통해 공간의 존재를 인식해 낼 수 있다.

공간을 쉽게 기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경우는 거리로서의 공간을 느끼는 것이다. 앉아있는 두사람의 모습은 둘 사이에 거리라는 공간이 존재함을 느끼게 해준다.

어떤 경우엔 거리가 멀다고 느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엔 너무 가깝다고 느끼기도 한다. 식당에서 줄을 선 사람들은 매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매표소에 가깝게 전진하면서 거리로서의 공간의 변화를 느끼게 된다. 공간은 사이의 거리로 느껴진다. 공간을 거리로서 느끼게 하기 위해 건축가들은 거리를 구별해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거리는 두 눈의 간격차를 통해 인간에게 인지되는 것으로서 하나의 사물과 다른 사물 사이의 투시적 차이점을 통해 거리를 일깨우게 된다. 중첩된 산의 모습은 산등선과 산등선 사이에 비워진 공간이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건축적으로는 담장의 중첩을 통해 이와 같은 효과가 쉽게 일어나며, 프레임 구조는 공간의 깊이를 드러내는 좋은 수법이기도 하다.

공간의 증거를 밝히고자 하는 것은 공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공간이 건축적 감동의 원천임을 확인하고, 건축적 공간의 창조에 심혈을 기울일 것과, 공간의 존재를 느끼게 하는 것이 인간의 심연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하는 바람에서 이다.

## 공간은 없다 Not Space, But Chi

동양학자인 도올 김용옥(金容沃)은 '나의 기철학(氣哲學)이 말하는 디자인'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건축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그러한 공간은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는 기철학에 근간을 두고 볼 때, 존재하는 것은 하나의 대상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자체라고 보고, 인간의 삶 자체를 위시한 실재하는 객체가 모두 순간적(transient) 변화물이라고 주장한다. 즉 서양에서의 존재는 존재론(ontology)으로서 점유(onto)하는 것으로의 물체(substance)로 나타나지만 동양의 기철학에서는 기(氣)개념만 존재하며, 그 이외의 것은 다만 기의 발산과 취합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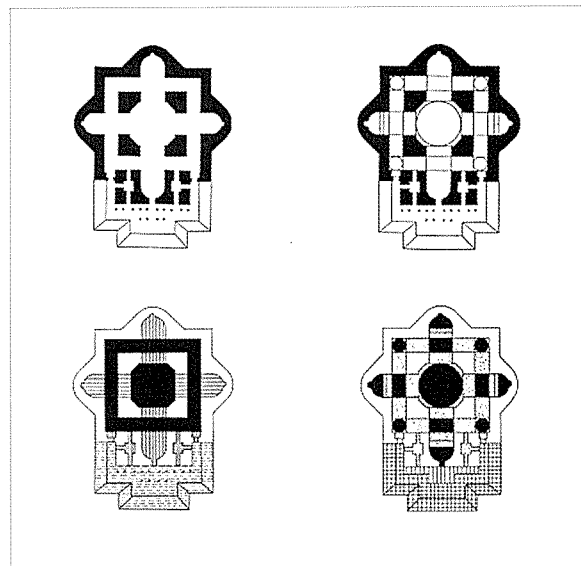


그림12 공간의 존재를 보여주는 St. Peter's 사원-그림: Bruno Zevi

존재에 대한 동서양의 관념차이가 건축물에 대해서도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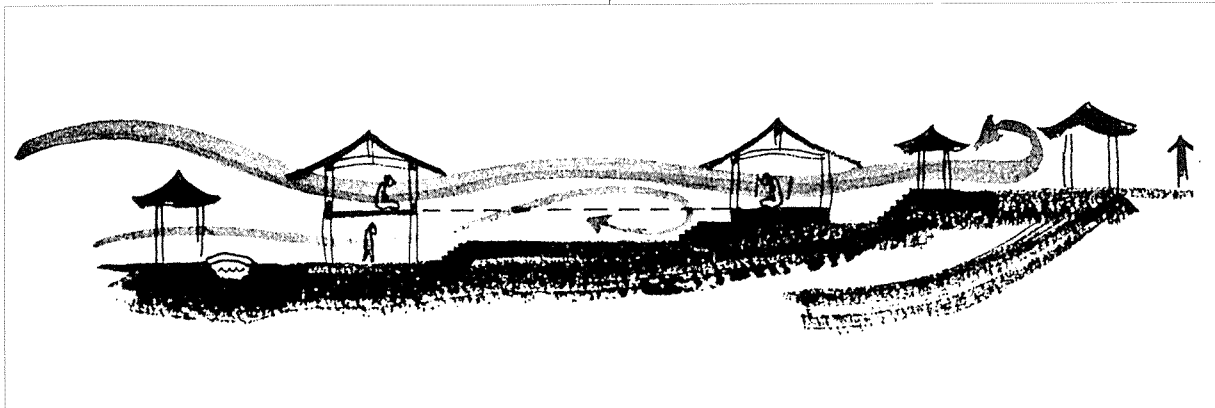


그림 13 기의 흐름으로 보는 공간-그림: 안영배

미차이를 만들어 내고, 건축에 대한 설명을 차이나게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피라밋의 경우를 들어, 점유하는 대상물의 영원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서 전형적인 서양의 사고를 보여주고 있으며, 공간의 경우 서양건축은 벽이라는 요소를 통해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을 명확히 분할(구분된 존재로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반면 동양에서는, 건물의 존재가 기(氣)의 유통에 따르며, 따라서 공간도 내부공간, 외부공간으로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기의 발산된 흐름으로 본다. 그리하여 한옥에서 얇은 창호지 한 장으로 안팎을 연결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서양적 존재론(ontology)으로서 공간이라는 개념은 한정되며 분할될 수 있는 공간이지만, 기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공간은 없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매우 독자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서구적 관념의 건축이론에서 주장하는 공간이론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양에서 공간이라는 개념은 19세기 리글(Riegl), 슈마소우(Schmarsow) 등이 바로크, 로코코 건축에서 보이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으로, 비 물체인 공간에 대해 인식하게 한 계기를 만든 것으로서, 건축사에 있어서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간개념은 흐르는 공간, 유니버설 스페이스, 공간의 연속 등으로 설명되는 20세기 근대건축운동(Modern Movement)의 발생과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기 디온이나 브루노제비 등은 공간개념으로서 서양건축사를 재편함으로써 공간을 건축의 핵심적 대상으로 부각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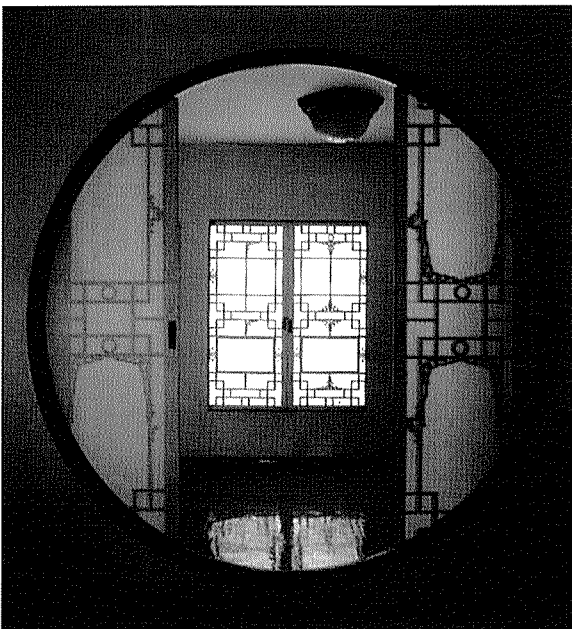


그림 14 빈투명의 창호지를 통해 내외부 공간의 기 흐름을 연결했다고 해석되는 낙산재 민월문과 창

오늘날 현대건축가들은 그들의 작품을 설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공간의 개념을 이용하고 있다. 피터 아이젠만의 공간구조의 해체와 프랭크 게리의 공간경험의 의외성 등은 모두 공간을 기반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공간에 대해 부정한다는 것은 생각해보기 힘든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노력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양에서의 공간은 놀리(Nolli)의 지도로 표기되듯이 피라밋의 물체에 대응되는 비 물체로서 존재하는 하나의 대상물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여기서 두개의 쟁점, 도올 김용옥의 공간은 없다 공간을 기존재의 흐름의 일부로 보는 것-와 공간을 하나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쟁점에 대한 가정의 인정여하에 따라 전혀 다른 의견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이 자리에서 논의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건축에 있어서 공간을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는가 그 사고의 영역 확장에 초점을 두고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즉, 건축에서 공간이 갖는 의미와 역할, 기능적 유용성과 폐해의 측면에서, 20세기뿐만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논의해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하겠다. 보이지 않는 공간을 존재의 영역에 포함시켜 인간이 다룰 수 있도록 도구화한 서양건축이론이 실질적으로 인간에게 많은 도움을 주어왔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나, 기계적 동작으로 프로그래밍되는 캡슐공간, 구조와 형식, 의미의 변화에 의해 유형화되는 건축공간, 에너지가 충족되고 인공적으로 환경이 컨트롤되는 인공도시 등은 공간을 하나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결국 공간을 인식된 자체의 자율성에 의해 통제함으로써, 인간의 삶과 자연, 나아가 증명되지는 않았으나 있을 수 있다고 제기되는 기와 공간의 연관된 의미-즉, 공간 자체만으로는 충족하지 못하는 의미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건축에 대한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 왜곡된 구조를 만들어 낼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도올의 논리가 추상적이며 쉽게 감지되지지는 않지만 21세기 지구환경으로 시야를 넓혀 생각할 때, 공간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한다. ㉮



그림 15 빈투명의 벽체를 통해 내외부 공간의 기 흐름을 연결하는 후미히코 마키의 동경의 교회 (좌: 외부, 우: 내부)